

News

“은행은 공공재” 압박에…은행들 수수료 면제-금리인하 경쟁

동아일보

신한, 창구 송금 수수료도 면제, 취약층 중도상환 수수료 안 받아

주담대 변동금리 4.95~6.89%, 한 달 전보다 금리 상단 1.22%p ↓

“금리 메리트 없다” 외면받는 인뱅

헤럴드경제

지난해 4분기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수신잔액은 47조 6858억원으로 3분기 대비 소폭 감소

금리인상기가 절정을 이루며 금리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9~12월 오히려 수신잔액이 줄어든 것

5대 시중은행, 대기업 대출만 늘렸다

서울경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은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줄이고 있음

중기·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속, 우량차주 위주 '숨아내기' 우려

CEO 교체·지배구조 개편…금융권 초긴장 “관치 제도화” 반발도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작업에 돌입. ‘주인 없는’ 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가 화두로 떠오름

대표적인 소유분산 기업인 금융지주회사를 비롯해 공기업에서 민영화한 KT와 포스코 등이 대상

보험사 올 콜옵션만기 4조 … 고금리에 자금마련 ‘이중고’

매일경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자본성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규모가 4조원을 넘음

여전히 금리가 높고 장부상 자본 인정 비율도 줄면서 보험사 부담이 가중될 전망

이달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 시작…‘영업용’도 논의 시동

MTN뉴스

지난해 車보험 흑자에도 영업용 나홀로 2~4%대 인상

대면활동 증가·연료값 인상…“영업용도 부담 덜어줘야”

증권업계, ‘회사채’로 자금조달 돌입…“건전성 제고 기회”

위키리스크한국

국내 증권사들이 모처럼 풀어진 채권시장 훈풍에 편승해 회사채를 발행하며 자금조달

KB증권이 조단위 수요예측 주문을 받으며 스타트, 키움증권도 당초 목표보다 5배로 자금 물림

“STO 24시간 거래 허용”…증권사 인수전 막 올랐다

이데일리

금융위, 전면 허용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코인보다 안전, 주식·부동산보다 새로운 투자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